

광주 지하철에 ‘詩畵 동영상’

〈시화〉

광주시인협회 문화전당역 등 7개 역사에 대형모니터 14대 설치

광주·전남 시인들 시 300여 편 선정 ... 시민들에 감상 기회 제공

시·음악·그림 어우러진

콜라보 형태 동영상 반복

광주 지하철역에서도 김현승의 ‘눈물’,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김영랑의 ‘복’, 문병란의 ‘호수’와 같은 시들을 멜로디와 함께 들을 수 있게 된다. 남도의 정서가 담긴 주옥같은 시들을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힐링은 물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지하철역이 ‘시화(詩畵) 동영상’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광주시인협회(회장 임원식)는 최근 상무역에서 ‘지하철 시화 동영상 개관식’을 개최하고 문화전당역 등 도시철도지하철 7개 역사에 14대(한 역사당 2대)의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시화 동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7개의 지하철 역사는 남광주역, 문화전당역, 금남로 4가역, 농성역, 상무역, 송정공원역, 송정역이다.

사실, 광주지하철은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넘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거듭해왔다.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소통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그 방증이다. 일례로 상무역, 남광주역, 농성역, 평동역에는 이미 공연무대가 마련돼 있고 이곳에서는 연간 300회가 넘는 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에 금남로 4가역에는 지역 작가들과 동호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가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역 등 광주 지하철역 7곳에 시화 동영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광주의 이미지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광주시인협회의 시화 동영상 제공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문학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인협회는 이번 시화 동영상 모니터 설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 시로부터 지원받은 2000만원과 시인협회 자체 예산 500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들여 7개 역사 14곳에 모니터를 설치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또한 시인협회는 광주, 전남 각 문인단체들로부터 동영상에 수록할 시를 추천받

아 교수와 저명 문인 등 권위 있는 심사위원단을 꾸려 심사를 했다. 공모 결과 모두 570편의 시가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서 300편이 최종 선정됐다. 작고한 지역 출신 저명 시인으로는 김영랑·김현승·박용철·이동주·조운·이수복·박종원·문병란 시인 등이 있으며, 이들의 시 30편이 뽑혔다.

현존 시인으로는 손광은, 오명규, 전원범, 김종, 박형철, 노창수, 강만, 백수인, 임원식 씨 등의 시 300편이 선정됐다. 시화 동영상에는 시와 음악,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콜라보레이션 형태이며 반복해서 동영상상이 제공된다.

김현승 ‘눈물’
박용철 ‘떠나가는 배’
김영랑 ‘복’
문병란 ‘호수’



‘동구 도시재생 상징 고양이’

‘잉여의 쓰임’

광주 롯데갤러리, 다음달 14일까지 자원 재활용 주제 전시

광주 롯데갤러리 광주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한 ‘잉여의 쓰임 II - to jump back’을 12월14일까지 연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농장다리, 나무전거리 등을 스토리텔링해 ‘엄사이클링’과 ‘Value cycle’ 콘텐츠 개발, 교육,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청소년, 디자이너, 조선대 섬유패션디자인전공 교수·학생 등 총 33명이 참여한다. 폐품을 디자인 업그레이드하고 감성·기능·사회적 가치를 담아 재탄생시킨 결과물들을 선보인다.

양문기, 신양호 작가는 ‘고유성, 공구와 만나다’를 소재로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에 새생명을 줬다. 자가 서랍장, 라디오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했다.

홍희란, 한우석 작가는 방수민, 한경진, 오금빈 고등학생들과 함께 작업했다. 도시 빈집을 지키는 고양이와 과거 동명동 소년원생들이 가족 안부를 묻는 내용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소재로 설치 작품을 출품했다.

노은희, 한선주, 김재희 작가와 조선대 학생들은 폐섬유·가죽으로 가방, 컵받침 등 생활소품을 제작했다. 그밖에 ‘행복한 쓰임 협동조합’ 소속 신수현, 강리라, 정명희 작가와 김지윤, 백설희 학생도 쿠션, 방석, 지갑 등을 선보인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양자역학과 서예의 만남

윤재혁 30일~12월 6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전시

해남 출신 백련 윤재혁 서예가가 30일부터 12월6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서예 작품전을 연다.

‘신개념 양자역학적 서예와 SUPER STRING AR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윤 작가는 물리학 ‘끈 이론’을 서예에 접목시킨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서에 스트링아트’는 일상에 녹아 있는 과학과 물리학적 사고를 결합시킨 신개념 서예술이다.

어지러운 붓질이 돋보이는 작품 ‘빅뱅’은 모든 물질과 시 공간이 태어난 빅뱅 이론을 형상화했다. ‘창조의 현장’은 초신성 폭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초신성 폭발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듯이 작가는 파도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그밖에 ‘시초’, ‘취도낙향’ 등 글씨를 자유롭게 해석한 작품도 출품한다. 윤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



‘취도낙향’

문 특선 3회, 전남도미술대전 서예부 문 특선 3회, 남부미술대전 대상 등 다수 상을 수상했다. 서화세계연맹협회 국제우수작가 선정, 한국서예경예작가 운영위원, 한중서화세계연 이사, 미협해남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해남서예원을 운영중이다. 문의 02-720-116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금별피 두 번째 시집 ‘바람의 자물쇠’ 펴내

금별피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바람의 자물쇠’(천년의 시작)를 펴냈다.

시인은 볼품없는 소박한 대상을 통해 세계의 비극성을 형상화한다. 작고 낮은 목소리로 세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화자의 목소리는 작고 나지막하다.

‘노을’, ‘노을상회에서 묻다’ 등 모두 60여 편의 작품은 나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시 전편에 흐르는 쓸쓸함과 애상의 정서 때문이다.

“자물쇠가 없어/ 바람을 잠글 수 없네/ 당신은 바람 남편/ 바람구두 신고 어디로 가나/ 바람은 귀가 없어/ 내 바람을 못 들었을까 하고/ 바람 아래 해변에 가서 물어보려 하네...”

표제시 ‘바람의 자물쇠’에 비쳐진 세계는 소박하면서도 비루하다.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은 세계이지만 그것이 곧 나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며, 나와



을 바탕으로 공감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다”라고 평한다.

한편 금 시인은 ‘시와 사람’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문턱’을 펴냈다. 2009년 아르코문예기금을 받았고 현재 동신대에서 강의를 한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중가문화 활성화’ 학술대회

다음달 5일 전남여성플라자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중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가 12월 5일 오전 10시30분 전남여성플라자(무안군 삼향읍)에서 열린다.

‘전남 중가의 정신·문화적 가치와 계승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토론으로 구성된다.

이해준 공주대 교수는 ‘중가문화의 가치와 현대적 계승방안’에 대해, 천득원 전남대 교수는 ‘중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小考)’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한국국학진흥원 소속 김미영 씨는 ‘경북 중가문화의 현황과 특징-중가의 제례문화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는 최한선 전남도립대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두시간 동안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각 중가를 대표하는 음식·유물이 전시된다. 김해 김씨 사군파는 김완장군 영정(보물 1305호), 나주 임씨 대중가에서는 약과, 함평 이씨 초포파에서는 모시잇송편 등을 출품한다. 문의 061-287-6803. /김미은기자 mekim@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